

능동성과 주도성을 자극해 지식 공유와 확장의 선순환을 꿈꾸다

모든 기업은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끊임없이 학습해서,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잡 크래프팅과 사내강사양성이 HRD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도 그러한 이유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구성원들이 느끼게끔 하고, 일을 잘하는 방법을 전사적으로 공유하여 성장하는 학습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혜민 라이프코칭센터 대표는 이러한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학습자의 능동성을 자극하는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강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이 학습자들의 개별 환경에 맞게 확장되는 것을 강의 원칙으로 삼는다. 이혜민 대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강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혜민 라이프코칭센터 대표

경력 사항

라이프코칭센터 대표
SK텔레콤 PS&M 교육사업본부 SA 강사
SK텔레콤 서비스에이스 세일즈 & CS강사
듀오정보㈜ 듀오HR컨설팅 교육연구원/강사
㈜푸드코아 마케팅 및 교육기획팀

학력 사항

중앙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박사 수료
중앙대학교 GHRD 석사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사

이혜민 라이프코칭센터 대표의 2019년은 매우 분주하다. 연 초부터 성과관리에 대한 강의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회의를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길 원하는 리더들의 퍼실리테이션 강의문의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전국을 누벼야 하기에 힘들고 지칠 법도 하지만, 그녀는 강의를 할 수록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에 행복하다고 말한다.

“강사는 학습자들의 표정에서 강의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고, 강의평가도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강의를 잘했다면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강의를 못했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며 더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 이상의 매력이 있습니다.”

생존을 넘어 탁월한 역량을 갖춘 강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이혜민 대표의 세 가지 차별화된 강점 덕분이다. 첫째, 이혜민 대표의 강의는 학습자 분석 결과에 따른 동기 부여에서부터 시작한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학습자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둘째, 현장을 반영한 실무 맞춤형 강의로 HRD 담당자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셋째, 학습자가 교육받은 내용을 현업에서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내재화한다. 이러한 그녀의 차별점은 능동성을 강조하는 현 HRD 트렌드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현재 기업의 관심사는 잡 크래프팅과 사내강사양성입니다. 잡 크래프팅은 기존의 top-down 방식으로는 구성원들의 능동적 몰입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사회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워라밸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욱더 자신의 '삶터'와 '일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일이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내강사양성은 핵심인재들의 학습 DNA를 조직 전체에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됐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조직으로 변모하여 내부 인적자원의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에 사내강사는 학습조직을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혜민 대표는 이처럼 교육현장의 HRD 트렌드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HRD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한 명의 HRDer로서 그녀가 생각하는 HRD의 의미는 무엇일까.

“시대적 환경은 바뀌었지만 사람의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으름, 질투, 열정, 공감과 같은 감정들은



▲ 이혜민 대표는 동기부여, 커스터마이징, 체득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차별화된 강연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옛날에도 있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결국 HRD는 사람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환경을 체계적·논리적·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까지라 생각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HRD의 본질에 관한 이혜민 대표의 대답. 그녀는 학회나 K-MOOC 등을 통해 폭넓은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통찰력 있는 시각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다른 강사들처럼 독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HRDer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HRDer로서 그녀의 장기적 꿈과 목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늘 ‘내가 찾는가, 나를 찾는가’를 생각해요. 제 강의를 다시 찾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로 학습자와 교감하고, 저의 강의 원칙인 지식의 공유와 확장, 그리고 강의 신념인 선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훌륭한 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라이프코칭센터의 대표로서 소속 강사들과 함께 학습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목표는 꾸준한 이론적·실무적 학습과 최신 트렌드 접목을 통한 발전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달려갈 생각입니다.”

이혜민 대표는 자신의 포부처럼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된 모습을 그리며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 무엇보다 그녀는 명확한 교육목적과 학습목표를 가진 HRD 담당자들과 협업할 때 교육만족도와 학습전이가 극대화되기에, 열정 있는 HRD 담당자들과 함께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앞으로도 이혜민 대표의 확고한 신념과 HRD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롯이 꿈을 이뤄내길 기대한다.HRD